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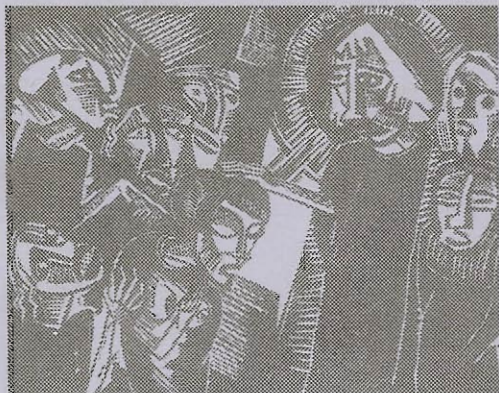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5주일(성 요셉 성일)  
제30권 17호(다해) 2010 · 3 · 21

## [묵상]



간음한 여인  
<칼 슈미트 로트루프(1884-1976년), LA카운티 미술관>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작은 아들을  
용서하셨던 아버지,  
아버지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홍분한 군중이 현장에서 잡은 간음한 여인을,  
울법에는 돌을 던져 죽이도록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와 이래도 용서할 거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인간이 지은 죄의 경중에 있지 않고  
인간에 대한 사랑 자체에 있기에  
예수님의 용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용서의 주체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용서를 보시고  
예수님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인을 고발한 군중의 용서는  
그들의 죄를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서가  
사랑 자체이신 용서의 하느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櫃-

marlinlee0501@hanmail.net

## 미사

번제시오회 (어려운 이틀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     |                              |                                |
|-----|------------------------------|--------------------------------|
| 수요일 | 저녁 미사                        | 오후 7:30                        |
| 목요일 | 아침 미사 (레지오)<br>저녁 미사         | 오전 9:00<br>오후 7:30             |
| 금요일 | 저녁 미사(사순시기만)                 | 오후 7:30                        |
| 토요일 |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br>특전미사 (청년미사) | 오전 8:30<br>오후 7:00             |
| 주일  | 아침 미사<br>학생미사(영어)<br>낮 미사    | 오전 7:30<br>오전 9:30<br>오전 11:00 |

## 주간 행사표

|     |                                                                                                                                                                                       |                                                                                   |
|-----|---------------------------------------------------------------------------------------------------------------------------------------------------------------------------------------|-----------------------------------------------------------------------------------|
| 화요일 | 배론 청년회 성경공부                                                                                                                                                                           | 오후 7:30                                                                           |
| 수요일 |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br>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br>레지오 마리아<br>예비자 교리반                                                                                                                      | 오후 2:00<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목요일 | 병자영성체 (1째주)<br>성 시간 (첫목요일)<br>레지오 마리아<br>성령 기도회<br>예비자 교리반                                                                                                                            | 오전 9:30<br>저녁 미사후<br>오전 10:00<br>오후 8:00<br>오후 8:00                               |
| 금요일 |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br>M.E. Sharing (3째주)<br>울프레아 (4째주)                                                                                                                            | 오전 9:30<br>오후 7:00<br>오후 8:00                                                     |
| 토요일 |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br>배론 청년모임                                                                                                                                                             | 오후 6:00<br>오후 5:00                                                                |
| 주일  |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br>글로리아 성가대<br>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br>2째주 - 모임의 날<br>● 번제시오회<br>●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br>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br>● 꾸리아<br>3째주 - 행사의 날<br>4째주 - 가정의 날 / 사목회<br>첫째/셋째주 - 대학부(PACEM) | 오전 중<br>오전 9:00<br>오후 1:00<br>오전 9:00<br>오후 1:00<br>오후 2:30<br>오후 1:00<br>오후 2:00 |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략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             |                                                                                                                                                  |
|-------------|--------------------------------------------------------------------------------------------------------------------------------------------------|
| 토 요<br>특전미사 | (연)송해봉 세례자요한,<br>백삼위순교성인들<br>(생)이관웅 요셉 & 권영옥 루치아 가정                                                                                              |
| 주 일<br>낮 미사 | (연)소수연 안나, 이금순 마리아, 이영자 마리아,<br>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김종환 야고보,<br>차안나, 차마리아, 엄은섭 도로테오<br>정기성 야고보, 문봉순, 강중익, 양영순<br>(생)오현옥 말비나,<br>박순자 안젤라,<br>정학순 발바라 |

###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3,16-21

화답송 ○주님께서 과연 저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저희는 못건디게 기뻐했나이다.

<전례성가 67, 사순 제5주일 다혜>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님께서 돌려보내실제 저희  
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그때에 저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홍겨운 노랫가락 혀에 넘쳤나이다.○

○그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하느님께서 저들에게  
큰일을 해주셨다. 주님께서 과연 저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저희는 못건디게 기뻐했나이다.○

○주님, 사로잡힌 저희 거래를 남녘땅 시냇물 처럼  
돌려주소서.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뿌릴 씨를 가지고 울며 가던 그들은, 곡식단 들고  
올제 춤추며 돌아오리이다. 눈물로 씨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이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3,8-14

복 음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나는 더그럽고 자비롭다.○

복 음 요한(John) 8,1-11

영성체송 여인아,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 오늘의 성가

|     | 청년미사(토요특전) | 낮 미사    |
|-----|------------|---------|
| 미사곡 | 51-58      | 33-42   |
| 입당  | 151        | 156     |
| 봉헌  | 377        | 257     |
| 성체  | 402        | 307,300 |
| 파견  | 150        | 149     |

### 1.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 인간 생명에 대한 현대의 위협 -

#### ▶희망의 표징과 헌신에 대한 초대

28). 빛과 그림자를 동반한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선과 악, 죽음과 생명, "죽음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의 엄청난  
난 극적인 충돌에 직면하고 있음을 충분히 깨달아야만 한다.  
우리는 단순히 이러한 갈등을 "대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필연  
적으로 "그 한가운데" 들어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 갈등과 관  
계가 있으며, 우리 모두는 무조건적으로 생명을 옹호하는 선  
택을 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  
해야 한다.

또한 모세의 초대는 우리 모두에게 역시 크고 분명한 목소  
리로 들려온다.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  
을 너희 앞에 내놓는다.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  
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  
여라."(신명 30,15,19)

이러한 초대는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 사이에서 날  
마다 선택을 요구받는 우리에게 매우 적절한 초대이다. 그러  
나 신명기의 초대는 더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 철저히 신앙적  
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촉구한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에 기본  
적인 방향을 부여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며, 주님의 법을 충실  
하고 항구하게 실천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내가 오늘 내리는 너희 주 하느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너희  
주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가 지시하신 길을 걸으며 그의 계명  
과 규정과 법령을 지키면 너희는 복되게 살며....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그것은 너희 주 하느님  
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만 충성을 다  
하는 것이다. 그것이.....오래 잘사는 길이다."(신명  
30,16,19-20)

생명에 대한 무조건적인 선택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서  
흘러나올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의해서 형성되  
고 양육될 때, 그 충만한 종교적, 도덕적인 의미에 도달하게 된  
다.

다른 무엇도 그만큼 우리가 죽음과 삶 사이의 갈등을 긍정  
적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한다. 우리는 하느님 아  
들들에 대한 신앙으로 그 갈등과 대면하게 되는데,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머무셨으며, 그리하여 우리가 "생  
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신"(요한 10,10) 분이다. 이것  
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이며, "아  
벨의 피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하는"(히브 12,24)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신앙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신앙의 빛과 능력을 가지고 현재의 상  
황이 던지는 도전들에 직면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책  
임, 곧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경축하고, 그 복음에 봉사할  
은총과 책임을 더욱더 잘 깨달아가고 있다. (◆계속)



## 죄 없는 자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죄상을 알았다는 사실과 죽음이 곧 닥쳐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죄인은 죄때문에 얻는 상처보다 그것이 남들에게 알려지면서 느끼는 수치심에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여인도 그만큼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죄로 인한 그녀의 두려움을 없애 주는 예수님의 용서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녀를 버랑 끝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 따져 물어서 만일 예수님께서 제대로 그녀의 죄상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마저 제거하려는 속셈을 내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중심에 서 있던 여인의 죄보다 여인과 예수님을 압박했던 유대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말씀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따지기 전에 남의 죄를 따지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용서라는 화두를 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남의 죄를 단죄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라고 강하게 호소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복음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말씀에서 명확해집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때의 반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죄의 용서는 신앙생활의 바탕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청하면 풀리는 신앙의 신비를 우리는 매번 생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죄를 고해하고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특히 사순 시기 때에 판공이라

는 훌륭한 관습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탓하고, 남을 책망하기보다는 나의 들보를 찾아내어 용서를 청하는 시기,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사순이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여인의 죄도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태도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벌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당신께 찾아와서 죄를 고해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용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는 우리 죄의 뿌리를 반성하여 주님께 고해해야 하겠습니까.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매몰차게 간음한 여인을 몰아세웠던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바라신 바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웃의 잘못에 너그러워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각박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나 잘못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당에서도 이런 여유와 용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작은 실수를 범하면 수군거리고 뒤에서 말하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칫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엄청난 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실수와 죄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서울대교구 사목국 선교전례사목부

### 이번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문제원<br>클로틸다    | 전남숙<br>리디아 | 신중철<br>아브라함 |
| 제1독서자 | 최대훈<br>아오스딩    | 황지영<br>안젤라 | 유철희<br>바오로  |
| 제2독서자 | 박소영<br>프란체스카   | 서용숙<br>에스텔 | 유현자<br>안나   |
| 제물봉헌자 |                |            | P.V.<br>2만  |

###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이번 주  | 토요특전<br>(청년미사) | 아침 미사        | 낮 미사          |
|-------|----------------|--------------|---------------|
| 해설자   | 송민영<br>보나      | 남성철<br>베네딕도  | 최진수<br>에우세리오  |
| 제1독서자 | 만슬기<br>로사리아    | 이상철<br>크리스토포 | 이재용<br>안드레아   |
| 제2독서자 | 이성연<br>크리스티나   | 이희강<br>크리스티나 | 권순길<br>체칠리아   |
| 제물봉헌자 |                |              | 도란스<br>등 2.3만 |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사순시기 †

어느덧 사순 막바지인 제5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많은 것에 잠들어 있습니다. 화해하고 용서해야 할 가족과 이웃들을 감싸 안지 못하는 사랑에 잠들어 있고, 나누고 보살펴야 할 가난한 이웃과 고통 받는 이웃들을 바라보지 못함에 잠들어 있고, 위선과 고집, 편견과 자만에 너무도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저희를 영원히 살리시는 주님께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 ◆ 사순 제5주일 전신자 십자가의 길  
3월26일(금) 7:30 저녁미사 후, \* 진행 : P.V. 구역
- ◆ 사순 특강 마지막 강의  
● 사순 5주(20/21일) : 양희문 신부 "회개와 화해성사"
- ◆ 판공성사 : 3월23일(화)  
● 참회예절 : 오후 7시30분  
● 고해성사 : 오후 8시부터(주일학교도 같은 일정)  
● 공동보속 : ①사도행전 통독 ②선행1회 ③주모경 1회  
이중 두가지 이상 선택
- ◆ 평일미사 시간 임시 변경  
● 본당 신부님의 남가주성당 합동판공 출장으로 수(24일)/목(25일) 평일미사가 아침 9시로 임시 변경됩니다.

- ◆ 아이티 지진피해자 돕기 백삼위 성모회포 김치판매  
● 일시 : 3월20/21일(토,일) 특전미사부터 주일미사까지  
● 종이 없는 배추로 새우를 갈아서 담근 맛있는 김치입니다.  
● 문의 : 성모회장 오혜숙 루치아 ☎(310)490-3358
- ◆ 제1회 부활맞이 친선탁구대회 중간보고  
● 마지막 준준결승전(오늘주일) : 5단체중 3단체 준결승진출  
● 준결승(28일) : 단체 3팀, 구역 3팀(토복, 토서, PV)중 각 2경기씩 시합진행  
● 결승(4월4일 부활절) : 부활절 미사후

- ◆ 천상의 어머니 푸리아 아치에스 행사 안내  
● 일시 : 오늘 주일(21일) 오후 1시 \* 장소 : 성당  
● 레지오 활동단원 및 협조단원들은 모두 나와 성모님께 충성서약과 봉헌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장 : 한복 또는 정장
- ◆ 부활맞이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교실, 화장실, 친교장, 부엌, 정원, 축구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청소합니다. 토요일 특전미사와 아침미사 참여자들도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일시 : 3월28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소공동체 구역장/반장, 계시관 안내 참조
- ◆ 빈첸시오 불우이웃돕기 옷 수집합니다.  
● 수집장소 : 친교장 앞쪽 수집함  
● 모든 연령대, 모든 종류의 옷(현옷은 깨끗이 손질해서 수집시오.) ☎(310)283-5879 박홍룡 요셉 빈첸시오 회장
- ◆ 백삼위 대학부/청년부와 CBLM(성서센터)봉사자 친교모임  
● 일시 : 3월27일(토)오전 10시, 본당 축구장/친교장  
● 행사내용 : Frisbee Football 경기, 그룹친교 및 복음나누기  
● ☎(310)738-0230 최진수 에우세비오 청년연합회 고문
- ◆ 남가주 한인M.E. 제65차 첫주말 수강부부 모집  
● 일정 : 4월30일(금)~5월1일(주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 신청비 : \$50 김 유스티노& 루치아 대표부부 ☎347-1665

- ◆ LA 마라톤에 본당 신자 5명 출전  
● 오늘주일(21일)에 개최되는 제25회 LA 마라톤 대회에 본당 마라톤 동호회 회원 5명이 출전합니다. 백삼위 건각들의 완주를 빕니다. 26.2마일을 뚫니다.  
● 선수 명단 : 윤희동 안토니오(사목회 부회장), 최재은 베드로(종교교육분과위원장), 최현찬 안드레아(조경분과위원), 정연영 크리스티나(글로리아 성가대), 이광희 루치아(토서 2반)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3월21일(주일) : 토런스 북1,2반(콩나물비빔밥 \$3)  
● 3월28일(주일) : 토런스 서2반(전주식콩나물국밥 \$3)

###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 고천용<br>김기석<br>김정화<br>민소애<br>박진심<br>이민상<br>이현주<br>최이원 | 권오상<br>김미성<br>김종렬<br>민찬기<br>방정복<br>이상규<br>정규숙<br>호경진 | 권태만<br>김병학<br>김형순<br>박가돈<br>안태갑<br>이영희<br>장인식<br>송마이클 | 금영도<br>김옥보<br>나경흠<br>박선행<br>오수인<br>이용식<br>최길주 | 김광자<br>김옥찬<br>노천수<br>박영룡<br>원진화<br>이용무<br>최미나 | 김교복<br>김운진<br>문두현<br>박인식<br>이경용<br>이일길<br>최의수 |
|--------------|------------------------------------------------------|------------------------------------------------------|-------------------------------------------------------|-----------------------------------------------|-----------------------------------------------|-----------------------------------------------|
| 합계 : \$3,285 |                                                      |                                                      |                                                       |                                               |                                               |                                               |

미사헌금 : \$2,983

| 성전헌금         | 고천용<br>김미성<br>나경흠<br>박영룡<br>이경용<br>이현주<br>최이원 | 권오상<br>김병학<br>노천수<br>박인식<br>이민상<br>정규숙<br>호경진 | 권태만<br>김옥보<br>민소애<br>방정복<br>이상규<br>이영희<br>최길주 | 금영도<br>김운진<br>민찬기<br>안태갑<br>이영희<br>최의수 | 김교복<br>김정화<br>박기돈<br>오수인<br>이용식<br>최미나 | 김기석<br>김형순<br>박선행<br>원진화<br>이용무<br>최의수 |
|--------------|-----------------------------------------------|-----------------------------------------------|-----------------------------------------------|----------------------------------------|----------------------------------------|----------------------------------------|
| 합계 : \$2,095 |                                               |                                               |                                               |                                        |                                        |                                        |



- ◆ 부활절 은총시장 행사 도네이션 받습니다.
  - 현금, 장난감, 인형 등을 3월 한달간(28일 주일까지) 받음
  - 문의: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또는 사무실
-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9~12학년 \* 기간: 7월23~25
  - 신청: \$175(4월25일까지), \$185(5월30일까지), \$195(마감이후) \* 마감: 5월30일
  - 참고 웹사이트: www.all4godcatholic.com
  - 접수: 주일학교 \* 문의: 강아네스 교장 ☎(310)780-0369
- ◆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일시: 오늘 주일(21일) 오후 1시 Room 6
  - 대상: 8학년 이상으로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
  - 신청: 한국학교 교사실(아직 2명 여유 있음)
  - 신청비: \$1
- ◆ 주일학교 견진성사
  - 리허설: 5월14일(금) 오후 7시30분~9시
  - Reflection: 5월20일(목) 오후 7시
  - 견진성사: 5월21일(금) 오후 7시
  - 대상: 주일학교 견진성사 대상자(10학년 이상)
  - 장소: St. Margaret Mary(25511 Eshelman Av. Lomita)
  - 참가비: \$40 (파티비 포함)
  - 신청 마감: 3월21일 \* 신청: 주일학교 또는 사무실
  - 견진성사와 대부모는 위 3일의 일정에 모두 참여해야함

남가주 소식

- ◆ 미주 가톨릭방송 기금모금 골프대회
  - 일시: 4월20일(화) 낮12시30분
  - 장소: Westridge Golf Club(1400 S. La Habra Hills Dr. La Habra, CA 90631)
  - 경기방식: 샷건 플레이, 144명
  - 본당별 선수명단 제출: 3월28일(주일)까지
  - 광고희망자, 티박스 스폰서 접수: 3월28일까지
  - 문의: 대회집행위원장 이재정 사도요한 ☎(562)403-7345
- ◆ 사우스베이지역 교회대향 축구대회
  - 일시: 4월17일(토)
  - 대상: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축구에 관심있는 형제들의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임면조 바오로 ☎(310)404-5991

이번 주 단체 모임

|       |  |
|-------|--|
| 행사의 날 |  |
|-------|--|

다음 주 단체 모임

|            |       |
|------------|-------|
| 3월 사목상임위원회 | 오후 1시 |
|------------|-------|

| 소공동체 부 장                              |     | 김씨니 클라라               | (310)612-8840                             |
|---------------------------------------|-----|-----------------------|-------------------------------------------|
| 차 장                                   |     | 박희자 마리아               | (310)325-6982                             |
| 차 장                                   |     | 이경수 헬레나               | (310)972-9193                             |
| 구역/장                                  | 반   | 반장                    | 장소/날짜                                     |
| 토런스 동<br>유현자<br>안나<br>320-3697        | 1   | 남명자 데레사<br>328-0847   | 김광자 엘리사벳 328-0847<br>3/13(토) 오후 7시 성당     |
|                                       | 2   | 한창주 요아킴<br>530-7702   | 한창주 요아킴 530-7702<br>3/13(토) 오후 7시 성당      |
|                                       | 3   | 신덕례 데레사<br>494-1390   | 신덕례 데레사 494-1390<br>3/20(토) 오후 7시 성당      |
|                                       | 4   | 정종미 클라라<br>377-4749   | 정종미 클라라 377-4749                          |
| 토런스 서<br>박정애<br>소화<br>데레사<br>218-7340 | 1   | 김순희 모니카<br>328-1817   | 박인식 토마스 328-1817<br>3/14(주일) 오후 5시        |
|                                       | 2   | 이크리스 아가토<br>619-7763  | 박스태파노 542-2952<br>3/18(목) 오후 7시           |
|                                       | 3   | 장정진 베로니카<br>803-7798  | 박진숙 토사 543-9051<br>3/20(토) 오전 11시         |
|                                       | 4   | 이은록 요셉<br>371-4645    | 이은록 요셉 371-4645                           |
| 토런스 남<br>박희자<br>마리아<br>325-6982       | 1   | 최옥희 데레사<br>378-4183   |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br>3/20(토) 오후 7시        |
|                                       | 2   | 이경수 헬레나<br>972-9193   | 이경수 헬레나 972-9193<br>3/10(수) 오전 10시30분, 성당 |
|                                       | 3   | 이혜선 안젤라<br>793-7733   | 이상철 크리스토퍼 793-7733<br>3/12(금) 오후 7시30분    |
|                                       | 4   | 이정훈 안셀모<br>908-8823   | 이정훈 안셀모 908-8823                          |
| 토런스 북<br>권병연<br>리더아<br>938-3255       | 1/2 | 최미열 클라라<br>895-8624   | 권전열 피데스 938-3255<br>3/13(토) 오후 7시 성당      |
|                                       | 3   | 대전회: 거주지<br>역반으로 배속   | 대전회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br>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
| 하버 카슨<br>윤남열<br>세라피나                  | 1/2 | 박혜경 레나타<br>808-5005   | 박종열 토마스아퀴나스 784-0460<br>3/13(토) 오후 7시     |
|                                       | 3   | 이영희 카타리나<br>518-1736  |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
| P. V.<br>이정숙<br>스테파니<br>755-8360      | 1   | 최길숙 요세피나<br>997-9006  | 박종선 리비나 748-7323<br>3/12(금) 오후 7시         |
|                                       | 2   | 김숙희 유소사<br>544-4807   | 국새찬 세바스찬 541-7644<br>3/12(금) 오후 7시        |
|                                       | 3   | 박은혜 클라우디아<br>796-6763 |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br>3/12(금) 오후 7시        |
|                                       | 4   | 강숙경 도미니카<br>541-0767  | 김인숙 안젤라 265-4701<br>3/9(화) 오전 10시30분      |



## 우리 반모임 자랑

**백삼위 한마당**은 우리본당 신앙공동체의 소식과 활동 상황을 소개하는 귀한 지면입니다. 백삼위 신자와 신심 단체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백삼위 한마당**은 최근 새로 구성된 본당 주보편집 위원회가 첫 취재한 기사를 그 출발로 삼아 앞으로 알차게 키워나갈 것입니다. 소공동체 구역별 반모임과 각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 하느님 사랑으로 뭉쳐진 '특별한 만남'



P.V.1반 반원들이 성모님(왼쪽)과 함께 **백삼위 한마당**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했다.

## ▶ P.V. 1반

“우리 반모임 자랑요? 오랜 기간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사랑의 공동체죠.”

레지오 단원, 사목회 여성 부회장, 전례부 위원, 청소년 분과장, 성혈 봉사자, 종교교육 부장, 성가대 반주자... 성당에서 ‘한 봉사’한다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사목 위원 모임이 아니다. PV구역 1반모임이 이 정도다.

지난 12일 박종선 리바나 자매 자택에서 19명의 교우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1반모임은 한마디로 ‘시끌벅적’했다. ‘단결력’ 하나는 어디서도 빠지지 않는 반이니 당연한 일이다.

PV 1반은 성당 일이면 뭐든지 화끈하게 잘 모인다는 게 큰 자랑이다. 다른 반에 비해 젊은층이 많진 않지만, 중·장년층이 주를 이뤄 서로 이민 생활의 적적함과 고단함을 달래고 조언도 해주며, 든든한 힘이 되어 준다.

성당 친교자리 점심 봉사 때면 항상 ‘완전판매’ 기록을 세울만큼 손 맛 좋기로도 유명하다. 이번 반모임도 예외는 아니었다. 금육을 지켜야 하는 사순 금요일이라 화려한 음식 준비는 못했지만, 소박하고 정성이 듬뿍 들어간 찌개서부터 식혜까지 손수 직접 만든 음식을 가득 차려 반원들의 탄성을 자아 내기도 했다.

이날은 최근 보스턴에서 LA로 이주한 김상규 니콜라

오 형제 가족도 처음으로 반모임에 참석했다. 니콜라오 형제는 “서부에 보금자리를 마련한지 얼마 안돼 모든 것이 낯설지만 함께 집에 모여 답소도 나누고 음식도 대접 받으니 정말 좋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보스턴에서도 반석회(일시 체류하는 사람들의 모임)라는 성당 활동을 했지만 소공동체 반모임은 이 곳에서 처음이라는 니콜라오 형제는 “앞으로도 여러 교우들과 친목을 통해 즐거운 식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반원들도 “친목도모 뿐만 아니라 복음 7단계 나누기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복음 말씀에 비추어 묵상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보는 등 신앙공동체의 값진 모임으로 키워 나가도록 힘쓰자”고 입을 모았다.

PV 구역장인 이정숙 스테파니 자매는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 피를 부리거나 그만두고 싶은 유혹, 자신의 활동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 등에 빠지기 쉽지만 우리 반은 모두가 겸손하고 열혈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다”며 “본당에 더욱 보탬이 되는 PV 1반이 되기 위해 모두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모인 ‘PV 공동체’가 작은 노력도 크게 보아주시는 주님 안에서, 각자의 자리, 주어진 소명에 충실한 모임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이성연 기자 / 백삼위 주보 편집위원회